



\*사진 출처 : 2025 WEA 서울총회 홈페이지

# numbers

vol. 345 | 2026.8.11.

통계로 보는 세계복음주의 현황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자녀에 대한 인식
2. 세계인의 성경 인식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세계 선교와 복음주의 신앙의 지형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 까지 개최한 WEA 서울총회(사랑의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조사 보고서(2026.06.)>를 발간하였는데, 이 조사는 한국 교회가 주관하여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및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글로벌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신앙 인식과 선교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복음주의 신앙의 오늘과 내일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지표를 마련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도의 역설’이다. 종교 자유가 높은 선진국 지역보다 오히려 종교적 제약과 박해가 심한 지역(87%)에서 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음주의 지도자의 90%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훈련을 받은 성도 삶에 실제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응답도 77%에 달했다.

이번 <넘버즈 345호>에서는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연령 구조와 종교 자유도부터 현장의 전도 장애물, 제자훈련의 성과, 사회 참여의 현주소까지 다각도로 짚어보았다. 본 보고서가 글로벌 사역지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세속화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함께 나아갈 본질적인 목회·선교적 전략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복음주의 전망 연구 조사

### 조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 조사 대상 |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회원(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등)          |
| 표본 규모 | 총 494명(유효표본) : 전세계 154개국 중 91개국 참여                 |
| 조사 방법 | 모바일/온라인 조사                                         |
| 표본 추출 | 전수조사                                               |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 조사 기간 | 2025년 9월 12일 ~ 2025년 10월 31일 (WEA 총회 전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
| 조사 주체 | WEA 서울총회(사랑의 교회)                                   |
| 조사 기관 | 목회데이터연구소                                           |

## [ 조사 방법 ]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총 3단계의 분석을 실시하였음.

- 1단계: 나라별·대륙별·참가자 교단별·직분별·성별 등 주요 변수 기준으로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함  
 2단계: 군집분석을 활용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총 ‘네 개의 지역 유형’으로 분류함  
 3단계: 군집별 빈도 분석을 검토하여 각 지역 유형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국가들을 분류함

[표1] 지역 유형을 나누기 위해 사용한 3개의 차원(Dimension)과 14개의 지표(Indicator)

| 차원                | 지표             |
|-------------------|----------------|
| 종교 자유             | 종교 자유 수준       |
| 전도                | 전도 활성화         |
| 복음 전파/전도<br>방해 요소 | 종교 자유 제한       |
|                   | 정치/법률적 제한      |
|                   | 사회 문화적 반대      |
|                   |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
|                   | 재정/인력 부족       |
|                   | 교인들의 전도 의지 약화  |
|                   | 언어 장벽          |
|                   | 국가의 디지털/미디어 검열 |
|                   | 안전/보안 위협       |
|                   | 세속화/탈종교화       |
|                   | 종교다원주의         |

[표2] 최종 도출된 4가지 지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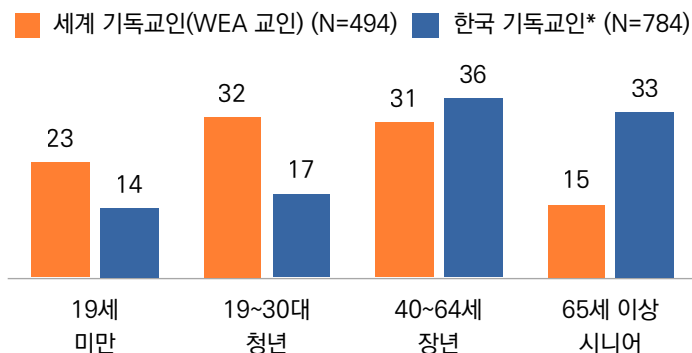
| 지역 유형별                            | 특성                                                                                                                                                                                                                                |
|-----------------------------------|-----------------------------------------------------------------------------------------------------------------------------------------------------------------------------------------------------------------------------------|
| 〈지역 유형 1〉<br>안정된 정체지역             | 이 지역은 극단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영적 활력도 높지 않아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환경을 가진 국가들임. 이 환경은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지대에 위치함. 극심한 박해나 제약은 없으나, 신앙의 열정과 전도 활동 또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역동성이 부족하고 안정 속에 침체된 상태가 나타남. 본 지역 유형에는 총 45개국(미국, 한국, 인도, 러시아, 에티오피아 등)                  |
| 〈지역 유형 2〉<br>열린 선교지               | 이 지역은 법적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사회적 반대나 정치적 제약이 거의 없으며, 세속화 영향도 비교적 약한 ‘최적의 선교 환경’을 가진 국가들임. 외부 박해도 적고 내부 세속화도 낮아,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필드라고 할 수 있음. 주로 남반구 기독교 국가들이 이 지역 유형에 포함되며 총 29개국(필리핀, 쿠바, 모로코 등)                      |
| 〈지역 유형 3〉<br>세속화 지역               |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지만, 동시에 세속화와 탈종교화가 가장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임. 높은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도 활동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며, 자유를 활용할 내적 동력 자체가 약화된 상태임. 서구 선진국들이 이 지역 유형에 다수 포함됨. 본 지역 유형에는 총 15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덴마크 등)                            |
| 〈지역 유형 4〉<br>역설적 부흥지<br>(종교 박해지역) | 법적 종교의 자유가 가장 낮아, 대외적으로는 개신교 박해국 또는 제한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경임. 그러나 실제 전도 현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제약과 반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됨. 이러한 낮은 마찰 환경을 활용하여 전도 활동은 전체 지역 유형 중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짐. 본 지역 유형에는 총 3개국(베트남, 알제리, 이라크)<br>*이해를 돕기위해 이하 ‘종교 박해지역’으로 기술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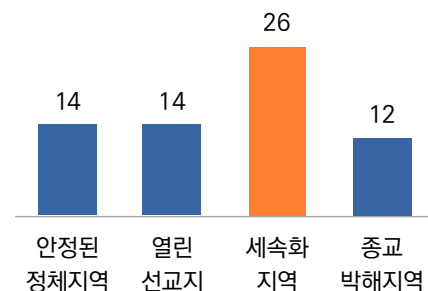
## 세계 기독교인 55%는 30대 이하 젊은 층!

- 세계 복음주의 교인의 연령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교인 과반(55%)이 3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집계됐다. 이를 한국교회와 비교하면 한국은 '30대 이하' 교인이 31%로, 절반에도 못미쳤고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은 세계 기독교인(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33%였다.
- 한편, 세계 기독교인 연령 구성을 지역 유형별로 보면 '세속화 지역' 지역의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26%)이 타 지역보다 2배가량 높아 고령화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교인 연령 비율 (%)



[그림] 지역 유형별 '65세 이상 시니어' 비율 (WEA 총회 회원, N=4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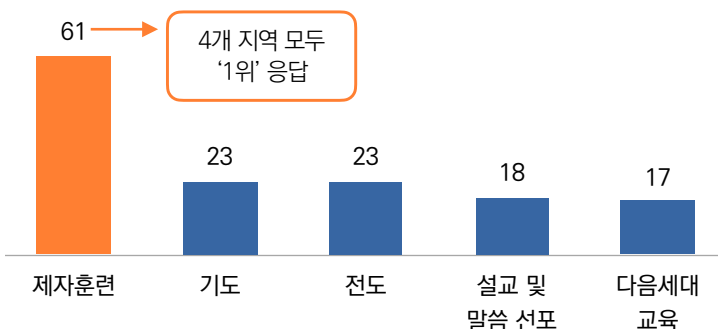
\*한국 기독교인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2023.12.(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784명, 휴대전화 RDD, 2023.10.18.~11.01.)/ 만 19세 미만 비율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2024년 말)의 일반국민 비율에 근거해 산출함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목회 사역의 최우선 과제, '제자훈련'이 4개 지역 모두 공통 1위!

-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1위는 '제자훈련'(61%)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이나 환경적 특성(4개 지역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독보적인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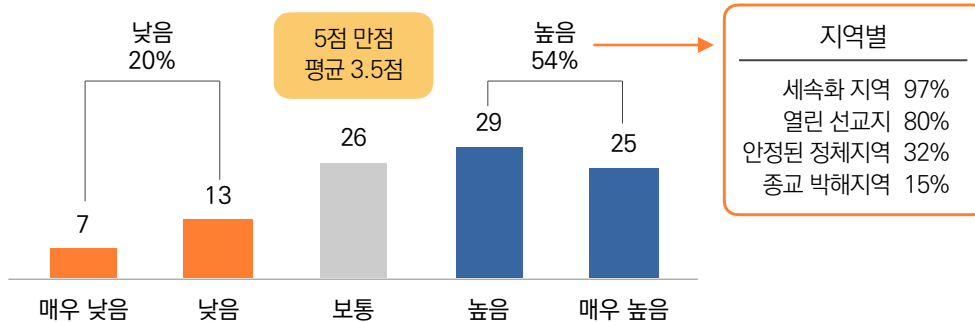
[그림]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WEA 총회 회원, 2순위 필수응답, N=494, %)



## 세계 사역지의 종교 자유 수준, ‘낮은 지역’ 20%!

-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평가한 선교지의 종교 자유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높음’ 이상 응답은 54%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종교의 자유 수준이 낮은 지역은 20%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역 유형별로는 ‘세속화 지역’ 97%와 ‘종교 박해지역’ 15% 간에 ‘높음’ 응답 비율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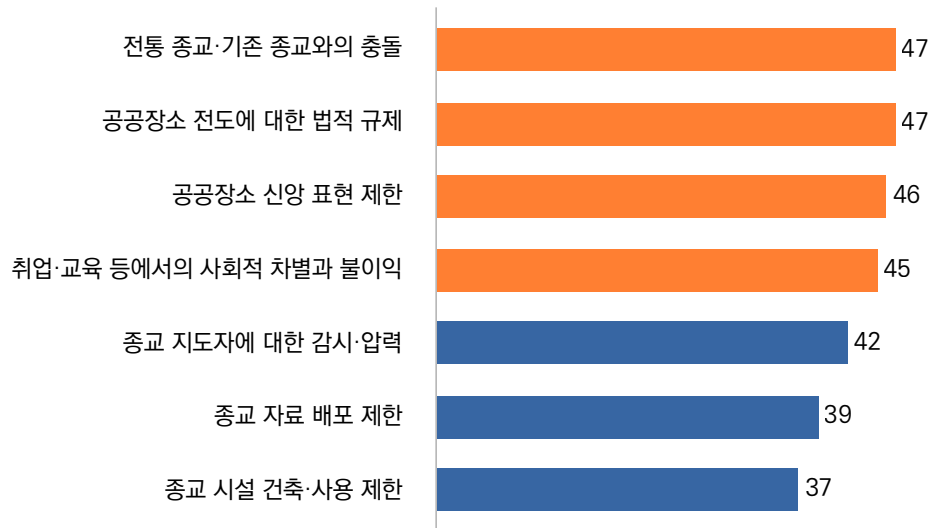
[그림] 종교의 자유 수준 평가 (WEA 총회 회원, N=494, %)



## 종교 자유 저해 요소, ‘종교 간 충돌’에서 ‘사회적 차별’까지 복합 작용!

- 종교의 자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통·기존 종교와의 충돌’(47%), ‘공공장소 전도에 대한 법적 규제’(47%), ‘공공장소 신앙 표현 제한’(46%), ‘취업·교육 등 사회적 차별’(45%) 등의 압박 요인이 비슷한 비율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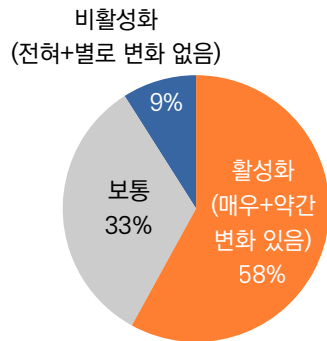
[그림] 종교 자유 저해 요소 (WEA 총회 회원, 상위 7개, N=4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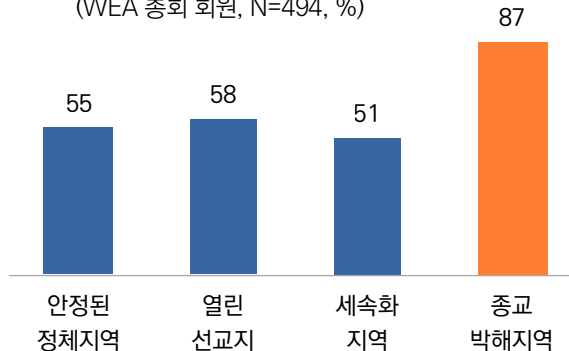
## 세계 전도 현장, 종교 박해지역에서 가장 활발!

- 사역지의 현재 전도 활성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활성화'(매우+약간 변화 있음) 비율은 58%로 절반을 웃돌았고, '비활성화'(전혀+별로 변화 없음)는 9%로 사역지 10곳 중 1곳꼴이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종교 자유가 높은 '세속화 지역'(51%)보다 종교 자유가 낮은 '종교 박해지역'(87%)에서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사역지 전도 활성화 정도  
(WEA 총회 회원, N=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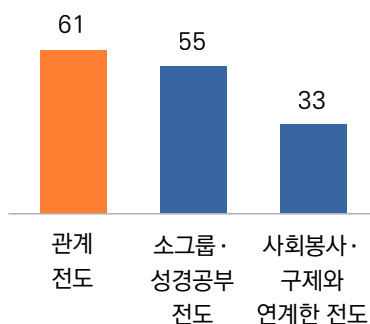
[그림] 지역 유형별 전도 '활성화'(매우+약간) 비율  
(WEA 총회 회원, N=494, %)



## 전도의 최대 장벽, '재정·인력 부족'...지역별 장애요인 달라!

- 사역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도 방식으로는 '관계 전도'(61%)와 '소그룹·성경공부 전도'(55%)가 주를 이뤘다.
- 한편 전도의 장애물은 '재정·인력 부족'이 전체 1위로 꼽혔으나, 지역별로는 '안정된 정체지역'은 '기존 종교 영향력'(55%), '열린 선교지'는 '재정·인력 부족'(40%), '세속화 지역'은 '세속화·탈종교화'(66%), '종교 박해지역'은 '종교 자유 제한'(98%) 등 각기 다른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요 전도 방법 (WEA 총회 회원, 1+2순위, 상위 3개, N=494,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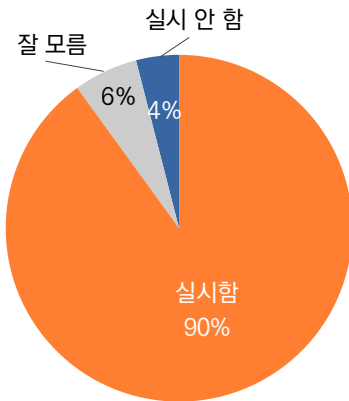
[그림] 지역 유형별 전도의 장애물(WEA 총회 회원, '매우+다소 방해된다' 비율\*, 상위 4개, N=494, %)

|    | 안정된 정체지역            | 열린 선교지             | 세속화 지역              | 종교 박해지역         |
|----|---------------------|--------------------|---------------------|-----------------|
| 1위 |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55%) | 재정·인력 부족 (40%)     | 세속화·탈종교화 (66%)      | 종교 자유 제한 (98%)  |
| 2위 | 재정·인력 부족 (50%)      | 교인들의 전도지 약화 (22%)  | 교인들의 전도지 약화 (42%)   | 사회·문화적 반대 (96%) |
| 3위 | 사회·문화적 반대 (47%)     |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8%) | 사회·문화적 반대 (18%)     | 정치·법률적 제약 (94%) |
| 4위 | 종교 자유 제한 (43%)      | 세속화·탈종교화 (4%)      | 기존 종교의 강한 영향력 (14%) | 안전·보안 위협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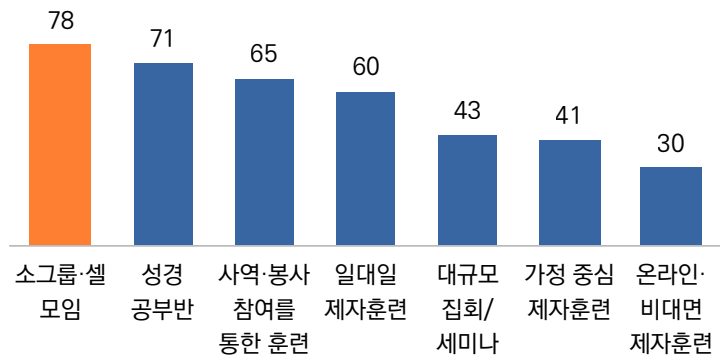
##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10명 중 9명,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실시!’

- 세계 복음주의 리더가 속한 교회 10곳 중 9곳(90%)은 현재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제자훈련 방식으로는 ‘소그룹·셀 모임’(78%)과 ‘성경공부반’(7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역·봉사 참여’(65%), ‘일대일 제자훈련’(60%) 등의 순이었다.

[그림] 제자훈련 실시 여부  
(WEA 총회 회원, N=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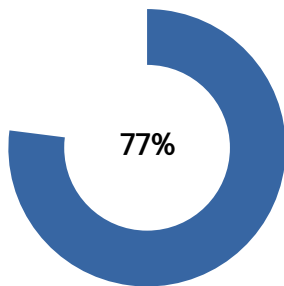
[그림] 제자훈련 방식 (제자훈련 실시하는 경우, 중복응답, 상위 7개, N=442, %)



##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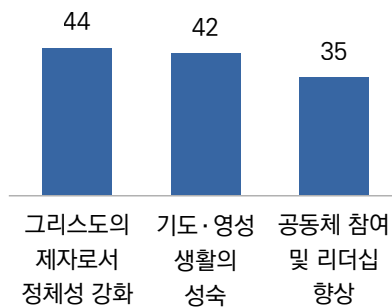
-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 리더의 77%는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실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 강화’(44%)와 ‘기도·영성 생활의 성숙’(42%)이 꼽혔다.

[그림] 제자훈련을 통한 성도 삶의 변화 경험  
(제자훈련 실시하는 경우, ‘매우+약간 변화 있음’ 비율\*)



\*5점 척도

[그림] 제자훈련의 성과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 경험한 성도 있는 경우, 1+2순위, 상위 3개, N=342, %)



Note) 본 질문은 각각 다음과 같음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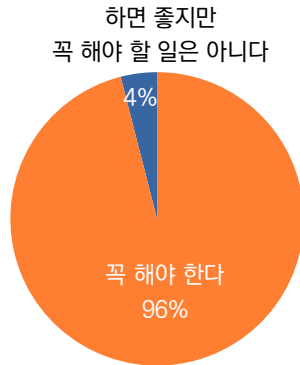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과는 무엇입니까?



## 세계 복음주의 리더 대다수(96%), ‘사회 참여는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 교회의 사회 참여 필요성에 관해 묻은 결과, 응답자의 96%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해, 사실상 거의 모든 리더가 사회 참여를 교회의 선택적 활동 아닌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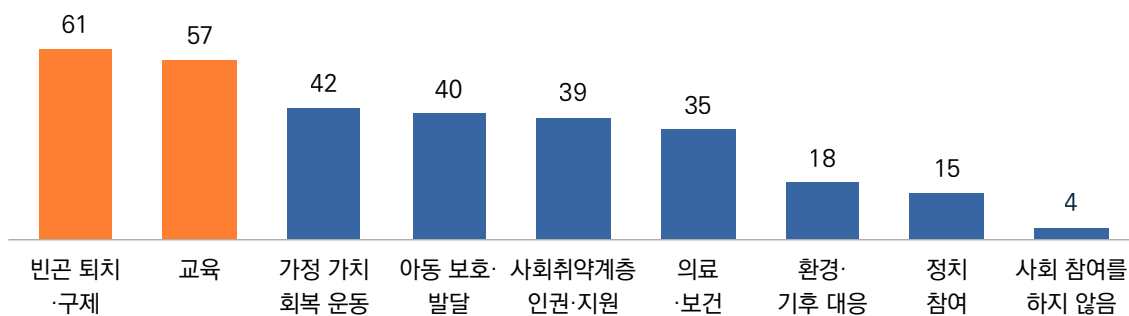
[그림] 교회의 사회 참여 필요성 (WEA 총회 회원, N=494)



##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 참여 활동, ‘구제’와 ‘교육’이 핵심 주축!

- 실제로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96%가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장 활발한 분야는 ‘빈곤 퇴치·구제’(61%)와 ‘교육’(5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빈곤 퇴치·구제’와 ‘교육’이 TOP2 사역을 형성했다.

[그림] 현재 교회에서 참여하는 사회 참여 활동 (WEA 총회 회원, 중복응답, N=494, %)



### 이번호 요약

#### 1. 세계 전도 현장, 종교 박해지역에서 가장 활발!

사역지의 현재 전도 활성화 수준을 살펴본 결과, '활성화'(매우+약간 변화 있음) 비율은 58%로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속화 지역'(51%)보다 종교 자유도가 낮은 '종교 박해지역'(87%)에서 전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 2. 목회 사역의 최우선 과제, '제자훈련'이 4개 지역 모두 공통 1위!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목회 사역 1위는 '제자훈련'(61%)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이나 환경적 특성(4개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 3. 세계 교회 지도자, '제자훈련으로 성도의 삶 변했다' 77%!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 리더의 77%는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삶에 실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응답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한국 교회 전도의 새로운 방향 (대한기독교서회, 구병옥, 김남식, 김선일 저 외 12명)

### 관련 성경 구절

그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 1절, 4절)

### 목회 적용점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현실은 환경이 전도의 결과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종교 자유가 보장된 세속화 지역의 전도 활성화 비율은 51%인 데 비해, 종교적 제약이 큰 박해지역에서는 87%에 달했다. 이는 전도의 성패는 외적 환경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교회 공동체의 내적 활력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도 전도의 어려움을 시대와 문화의 탓으로만 돌리기보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관계 속에서 신앙을 나눌 수 있도록 전도 동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는 세밀한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90%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그 가운데 77%가 성도들의 실제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자훈련은 단지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기도와 영성,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다. 한국교회는 전도와 제자훈련을 별개의 사역으로 나누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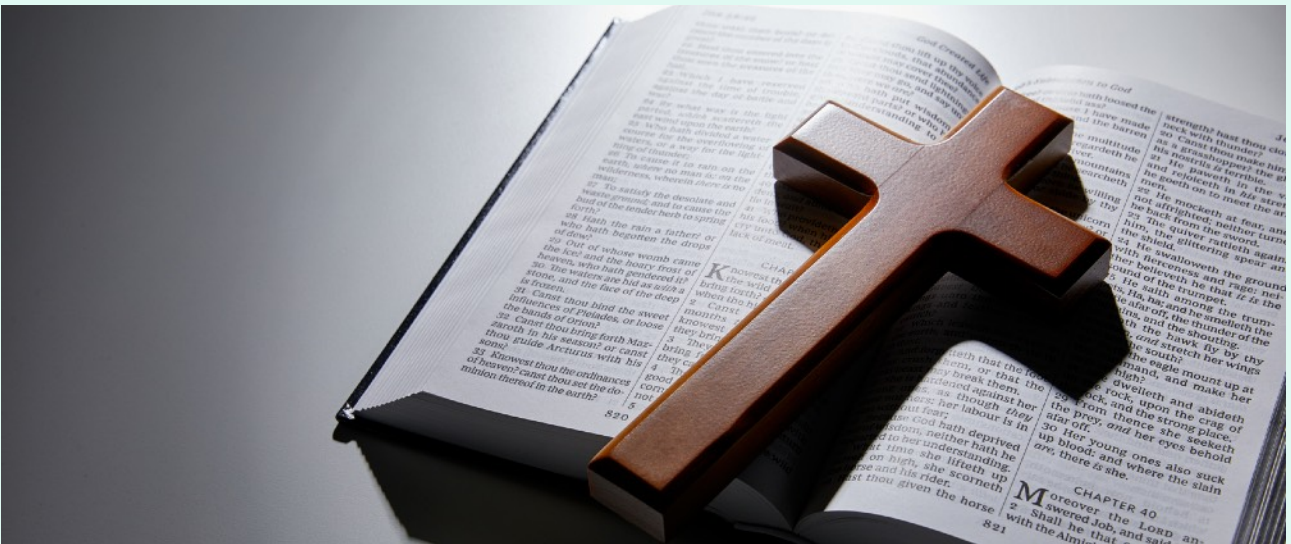
여기에 세계 복음주의 리더의 96%가 사회참여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한 것처럼, 구제와 봉사 등 이웃을 섬기는 실천까지 연결될 때 교회는 비로소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자녀에 대한 인식



## 2. 세계인의 성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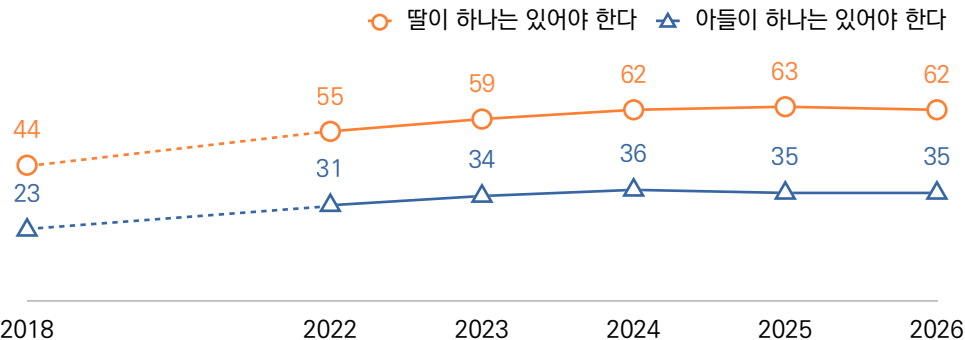


## [자녀에 대한 인식]

### 한국인 10명 중 6명, '딸은 하나 있어야 한다'!

- 한국인은 딸을 더 선호할까? 아들을 더 선호할까?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묻은 결과, '딸이 하나 있어야 한다'에 62%,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에는 35%가 동의해, 딸 선호가 아들 선호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4년 이후 6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딸이 필요하다'는 데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일반 국민,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각 조사별 N=1,00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 계획, 성별 선호, 그리고 양육의 방향, 2026.07.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4.24.~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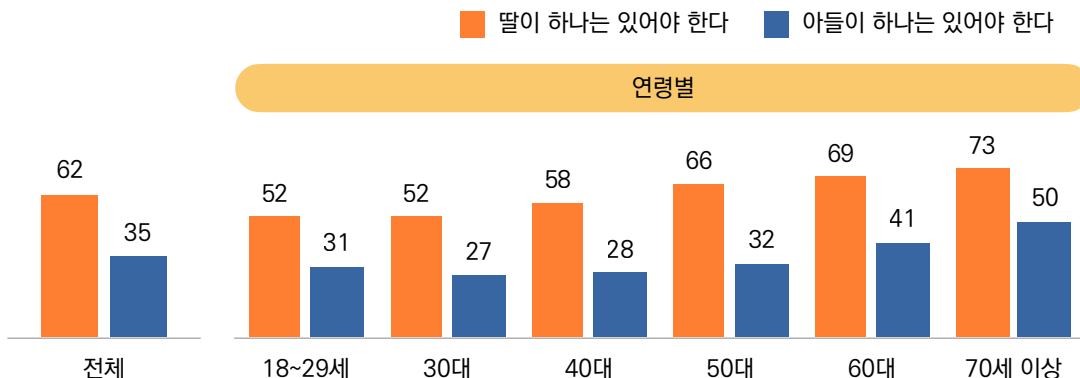
\*2018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대상 조사, 2점 척도(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제시함

2021년부터는 4점 척도(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로 제시, 2022년 조사부터는 '모르겠다'를 보기에 제시함

### 모든 세대에서 '딸 선호' 우세!

-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딸 선호'가 '아들 선호'를 앞섰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혹은 딸 선호도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한편,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유일하게 절반(50%)을 차지했다.

[그림] '연령별'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 (2026, 일반 국민,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N=1,00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 계획, 성별 선호, 그리고 양육의 방향, 2026.07.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4.24.~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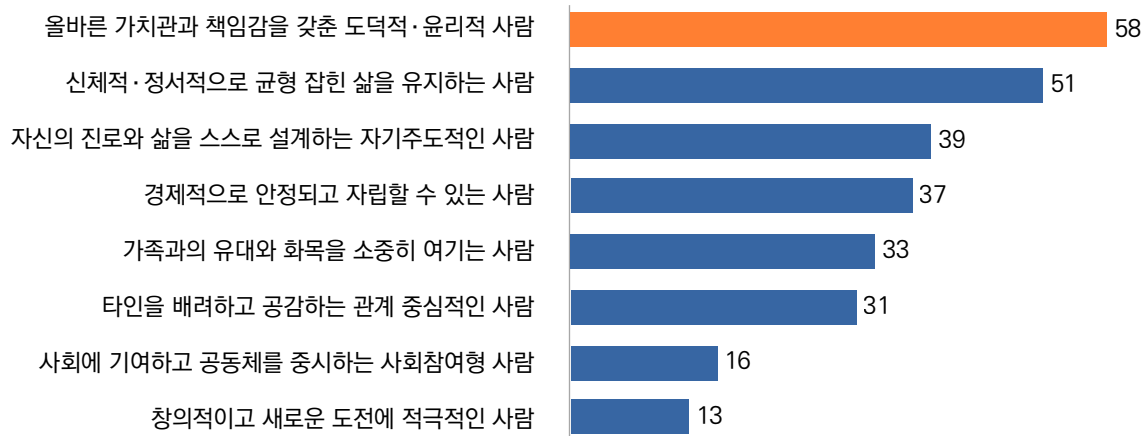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

\*\*4점 척도

## 자녀 양육 시 지향하는 자녀상, ‘도덕적·윤리적인 사람’(58%)!

-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또는 키웠는지) 묻은 결과,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갖춘 도덕적·윤리적 사람’(58%)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신체적·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사람’(51%), ‘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39%) 등의 순이었다.
-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은 4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자녀 양육 시 지향하는 자녀상 (2026,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8개,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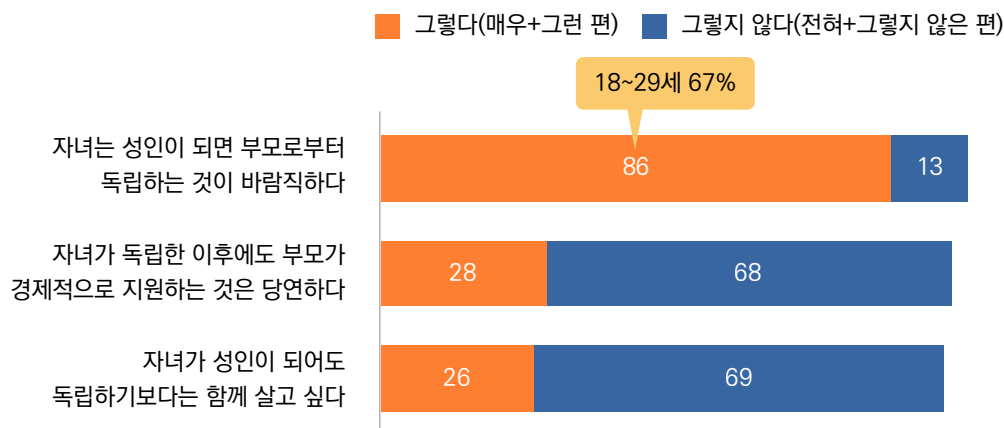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 계획, 성별 선호, 그리고 양육의 방향, 2026.07.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4.24.~04.27.)

## 국민 86%,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녀 독립과 관련된 몇 가지 인식을 묻은 결과, 국민 대다수(86%)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29세 청년층의 동의율은 67%에 그쳐, 타 연령대에 비해 독립에 대한 부담이나 유예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한편, ‘독립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당연하다’(28%)는 인식에는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 독립 이후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분리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자녀 독립에 대한 인식\* (2026, 일반 국민, N=1,00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 자녀 계획, 성별 선호, 그리고 양육의 방향, 2026.07.28.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4.24.~04.27.)

\*모르겠다 응답은 제외



## [세계인의 성경 인식]

### 조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 조사 대상 및 규모 | 세계 150개국 성인 9만 1,000명                                  |
| 조사 방법      | 대면·전화·온라인 조사 병행                                        |
| 표본 추출      | 다단계 층화 군집 표집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
| 조사 기간      | 2023~2024년                                             |
| 조사 주체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영국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가 설립한 연구 프로젝트)        |
| 조사 기관      | 갤럽                                                     |

\* 사회·종교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전 세계를 7개 클러스터로 분류했는데, 하나씩 해당 지역과 주요 응답(동의를)을 살펴본다.

### 지역 유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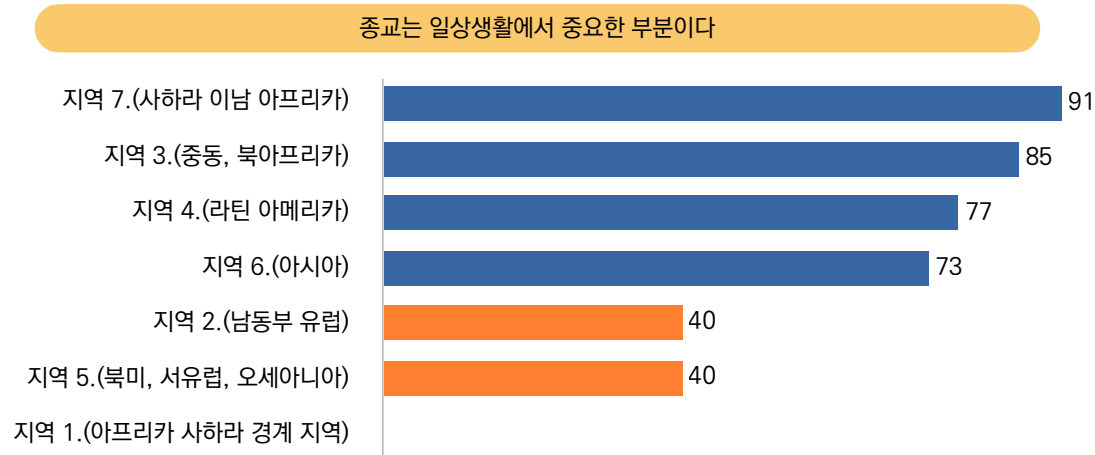
| 지역 유형별 | 해당 지역                                              |
|--------|----------------------------------------------------|
| 지역 1.  | 아프리카 사헬(사하라 사막의 경계) 지역(차드, 감비아, 말리, 니제르, 세네갈 등)    |
| 지역 2.  | 남동부 유럽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  |
| 지역 3.  | 대부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전반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
| 지역 4.  |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등)   |
| 지역 5.  | 북미·서북유럽 및 오세아니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
| 지역 6.  | 아시아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등) |
| 지역 7.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카메룬, 콩고 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등)      |



##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북미/유럽 지역 절반 미만(40%) 동의!

- ‘종교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보면 ‘지역 7’(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이 91%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40%)은 남동부 유럽(지역 2)과 북미·서북유럽(지역 5)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림]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7개 지역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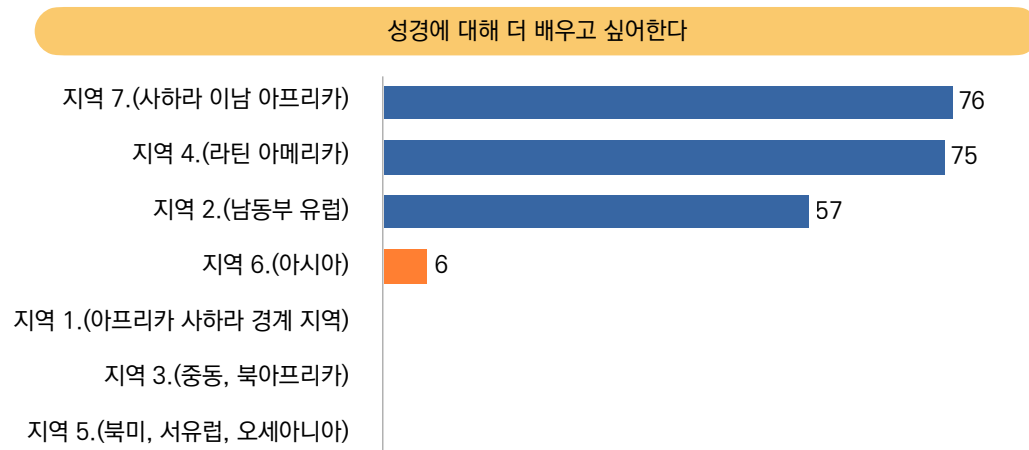
※출처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결과, 2026.10.

Note) 원보고서에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유형은 그래프 표시하지 않음.

## 한국 등 아시아(지역 6),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 6%에 불과!

-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한다’ 동의율을 보면 한국 등 아시아가 속한 지역 6이 6%에 불과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한다 (7개 지역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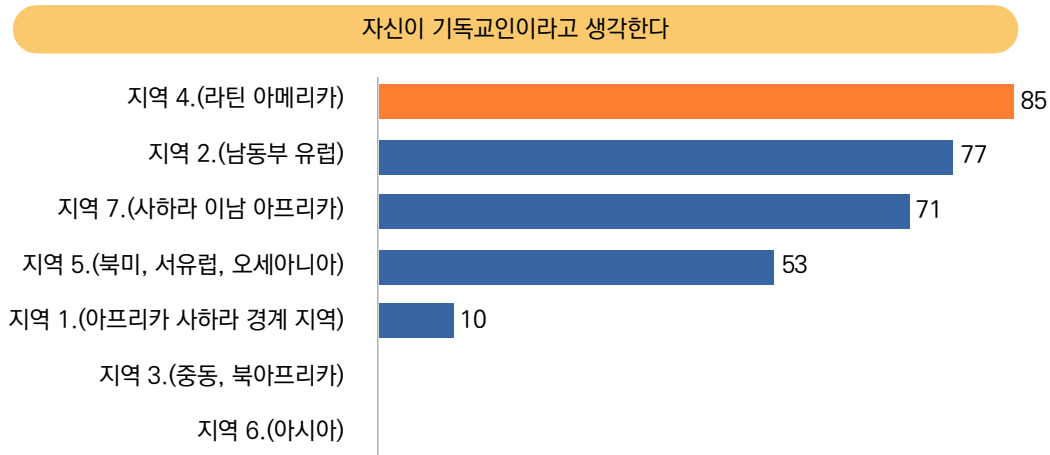
※출처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결과, 2026.10.

Note) 원보고서에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유형은 그래프 표시하지 않음.

## 라틴 아메리카(지역 4),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85%!

-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비율은 ‘지역 4’인 라틴 아메리카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1’은 이슬람교가 우세한 지역으로 기독교인 비율은 10%에 그쳤다.

[그림]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7개 지역별, 동의율, %)



※출처 : 파트모스 이니셔티브, 파트모스 세계 성경 인식 태도 설문조사 결과, 2026.10.

Note) 원보고서에서 동의율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유형은 그래프 표시하지 않음.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5호 \(2026년 7월 5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금리 방향성, 부동산 정책 평가

#### [“미국 믿는다” 한국 45% 일본 35%…두 핵심 동맹국이 흔들린다](#)

중앙일보\_2026.8.10.

### 사회 일반

#### [1~5월 12만명 출생, 7년만에 최다…증가율 15%,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6.7.29.

#### [국민 10명 중 4명 땅 가졌다…60대 비중 최고·세대당 면적은 줄어](#)

디지털타임스\_2026.7.29.

#### [\[그래픽\]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연합뉴스\_2026.7.28.

#### [바늘구멍 K팝 아이돌…“30년간 1천182팀 중 밀리언셀러 단 19팀”](#)

연합뉴스\_2026.8.4.

#### [고교 평교사 3명 중 2명이 여성인데…교장은 남성이 78%](#)

연합뉴스\_2026.8.3.

#### [19~39세 여성 62% “성관계시 항상 피임”…3년새 10%p ↑](#)

연합뉴스\_2026.8.3.

#### [‘왕사남’ ‘산천어’ ‘군밤’이 살렸다…생활인구 증가](#)

중앙일보\_2026.7.30.

#### [‘이별 경험자’ 절반 “이별 전후로 배우자·파트너 폭력 경험”](#)

연합뉴스\_2026.7.30.

#### [고위험 음주 남성 10년새 급감…20대 42% ↓·30대 36% ↓](#)

연합뉴스\_2026.7.27.

#### [‘마운자료’ 처방 150만건 돌파…2030 절반·10대 1.5배로 ↑](#)

연합뉴스\_2026.7.29.

#### [대부업체도 “No”해서…저신용 12만명, 불법사채 손댔다](#)

중앙일보\_2026.7.29.

#### [\[2026 자녀·육아인식조사\] 잘 되기보다 잘 자라길 – 자녀 계획, 성별 선호, 그리고 양육의 방향](#)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7.28.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청년 3명 중 1명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부동산·주거 불안정”](#)

주간조선\_2026.7.29.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11~12세에 SNS 접한 학생, 수학·국어 학업 떨어져"

조선일보\_2026.8.5.

### 19세 한국남성 평균 체중 73.37kg...10년만에 3.93kg 증가

연합뉴스\_2026.7.31.

### "연애 관심 없어" 日보다 더 높았다...한국 청년들 변한 이유

중앙일보\_2026.8.4.

## 노인

### 배우자가 치매인 경우 본인의 치매 위험도 70% 높아

데이터숨\_2026.7.29.

###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1천만명 첫 돌파..."73.6세까지 일하고파"

연합뉴스\_2026.8.5.

### "운동 안 하는 노인, 주 1회 모임 참여하면 인지장애 위험 절반 낮아"

조선일보\_2026.8.3.

### [그래픽] 고령자 1인 가구 추이

연합뉴스\_2026.7.28.

## 경제 · 기업

### "1년 뒤 집값 올라 있을 것"...전망지수 5년새 최고

중앙일보\_2026.7.29.

## 기독교 · 종교

### 유럽 청년들, 신앙에서 삶의 방향 찾는다

한국기독교공보\_2026.7.15.

### '10년 주기설' 부목사는 왜 떠나는가

한국기독교공보\_2026.7.15.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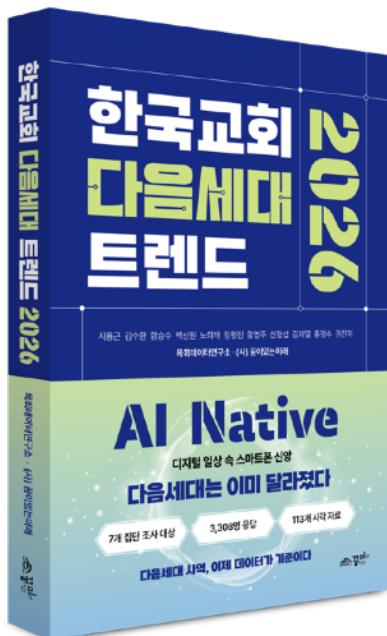


###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 (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 라잇나우미디어 8월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8월 [데이터로 읽는 한국교회,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에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 1) 일정 : 2026년 8월 24일(월) 14:00~16:00
- 2) 강사 : 나도움 목사(스탠드그라운드 대표, [AI 감각 수업] 공동 저자)
-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4) 참가비 : 무료
-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